

# 대학도서관 경영의 새로운 시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 준 민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대학도서관 경영의 합리화 방안 |
| 2. 도서관 서어비스의 본질     | 5. 결론               |
| 3. 현행 대학도서관 경영의 문제점 |                     |

## 1.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 전산화는 필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도서관이 전산화를 마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서어비스의 시대를 맞고 있다. 게다가 상업적으로 개발되어진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신망 사업에 힘입어 도서관과 연계하여 엄청난 정보의 보유와 유통 및 활용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금에 이르러 도서관 전산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보통신망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전산망, 교육전산망이 완료된 시점이다. 이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전산망을 통하여 도서관 전산화와 전국 국립대학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전문, 특수 도서관은 대덕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이미 연구소 단지 내의 자료실 전산화와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소 간의 정보 서어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업적으로 개발되어진 국내외의 몇몇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 시판 중에 있으며 일부 사립대학은 이들 전산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미래의 도

서관 네트워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전산화는 그 명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그다지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전산화를 시행한 도서관들의 예를 보아도 전산화 기능 중 극히 일부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서들에게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안겨주고 이용자 역시 전혀 개선되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목록의 자동생산 기능만을 위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곳도 있으며 어떤 도서관은 수작업으로 수행된 결과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 시키는 웃지 못할 희비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개념을 그대로 수입하였기에 빚어진 일이다. 외국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도서관 환경과 목적에 맞게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무시한채 형식만을 복사한 국내 프로그램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서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컴퓨터의 기능을 십분 활용한 시스템 전산화가 아니라 그들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은 도서관 전산화 이전에 이미 도서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상호대차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미국회도서관의 남본제도를 통한 종합목록의 생산 및 다른 도서관들을 위한 인쇄목록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기존의 도서관은 책을 구입할 때 미국회도서관으로 부터 인쇄목록카드를 주문하여 사용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발달은 도서관 목록의 전산화를 진작시켰으며 통일된 목록규칙과 관리에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미국의 우편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상호대차가 더욱 활발해지자 도서관 전산화는 목록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개별 도서관은 소수의 목록 사서를 두어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도서관 전산화의 환경이자 개발 방향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상호대차가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도서관이 모두 목록 사서를 두어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목록의 공유라든가 상호참조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이용자들의 자료검색 습관과 패턴 역시 서양의 것과 달라 도서관 전산화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인덱스의 설계 및 운영방법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자료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도서관 전산화가 부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도서관 서어비스의 관행에 있다고 하겠다. 행정편의주의와 경직된 도서관 서어비스는 이용자로 부터 외면당할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도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미래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은 커다란 공통화석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본고는 도서관의 특히,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학도서관을 소생시킬 방법을 모색하여 정보사회의 공통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정보 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 2. 도서관 서어비스의 본질

도서관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이용자의 정보욕구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이용자를 위한 정보 수집과 가공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서는 이와같은 도서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사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해 즉시 서어비스 하여야 한다. 물론 서어비스 방법은 정보의 제공이며 그 형태는 소장 위치를 알려주는 단순한 것으로 부터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분석, 이를 토대로한 복합적인 자료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능과 자원의 한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킨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도서관이 이미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지연시켜야 할 필요성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잠재 이용자를 위한 준비는 현재 이용자의 이용제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수집, 가공해야 한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사서는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위에서 이용자에게 서어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되어진 각종 정보를 보다 유용화 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서어비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어비스 정신 위에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닌 정보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서관이 갖는 한계를 발견한다.

도서관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모기관의 배려와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으로 존재할 뿐 진정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 부른다. 정보사회라 함은 정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는 사회를 말한다. 그것은 정보행위와 정보 자체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용자는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발전을 크게 두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초기형태는 정보통신사회이다. 정보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기존의 정보전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전자통신의 발달이 정보의 전달행위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정보사회의 도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양질의 정보를 개발하여 전달하는 시대의 도래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정보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망을 구축하였다 하여도 그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할 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보사회라 불리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각광 받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며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정보의 유통은 이제 도서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정보를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안방으로 옮겨놓았다.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 기능 역시 도서관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만이 갖는 유일한 기능이라곤 원정보의 축적이랄 수 있겠는데 그나마 차세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조만간 도서관의 손을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서관은 공부방의 기능으로 만족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도서관을 건물의 형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도서관을 물리적 개념이

아닌 그 기능의 차원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도서관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어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3. 현행 대학도서관 경영의 문제점

대학도서관 경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 기관이 갖는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그것도 대학의 심장이랄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조직원의 동기유발은 조직원의 개인적 업적 평가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적 업적은 그들에 부과된 업무가 확실하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가능하다. 조직은 조직원의 업무평가를 통한 상벌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서관의 일반적 경영 관행은 조직의 생산성과는 무관하다. 본고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도서관 조직의 일반적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수서, 정리, 열람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업무구분에 따라 조직을 관리한다. 즉,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로 도서관의 기능을 분담하여 각 과에 책임자와 사서 및 일반 사무요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도서관 업무와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정보(책, 연속간행물 등)가 입수되면 수서과에서 등록업무를 마치고 정리과로 넘겨진다. 정리과에서는 입수된 정보를 가공(분류, 목록)하여 2차 자료를 생산하여 정보는 서가에 그리고 2차자료는 목록함으로 보낸다. 드디어 정리과를 거쳐나온 정보는 열람과에서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역으로 새로운 정보의 구입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수서과 나름의 결정에 의해 수서과에서 일괄 수집, 주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행의 조직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염두에 두었다라기 보다 정보관리의 효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보의 구입이 비록 그것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늘 접하는 열람과의 사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 라든가 새로 입수된 정보의 처리과정을 이용자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의 이용에 대한 피이드백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입수된 정보의 활용성을 수서과 직원은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구입에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와 패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정보 유통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조직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조직의 문제는 이같은 정보 유통의 장애가 궁극적으로 도서관 전체의 유용성이나 생산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어느 사서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입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요구인지 집단의 요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입수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의해 전혀 이용되지 않는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 분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료관리의 문제가 정리 차원에서의 문제인지 이용자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인지 한계가 불분명하다. 한 예로, 이용자가 특정 정보에 대해 도서관에서 탐색을 시도했다고 하자. 목록과 서가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 이용자는 당연히 열람실에 근무하는 사서에게 자신의 문제를 피력하고 도움을 청할 것이지만 새로운 정보의 입수는 수서과의 소관이므로 열람실의 사서는 이용자에게 수서과에 가서 정보입수를 요구하라 할 것이다. 이용자는 수서과에 정보구입을 의뢰할 것이며 그 후 그 정보가 입수된 경우, 수서과 사서로부터 정보입수 통지를 받게 된다. 그나마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주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수서과 사서는 그 정보를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주문하므로 입수 때 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용자는 그렇게라도 입수된 정보를 빨리 이용하고자 도서관을 방문하면 그 정보는 아직 정리과에 머무르고 있어 정리과 사서에게 다시 한번 그 정보에 대해 설명을 하며 정보이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과 사서는 현재 정리되고 있는 정보 중 어느 것이 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얼마나 다급한

것인지에 대해 수서과, 정리과 사서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열람과의 참고사서는 그 정보가 주문되었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정보는 도서관 서가에 배열된 후에야 비로소 이용이 가능해지며 그 때까지 소용되는 시간은 적어도 2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국내 유수의 종합대학의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적어도 연간 2~3만건을 넘으리라 본다. 현재 소장중인 자료도 대부분 40만~60만건을 넘고 있으리라 평가된다. 대학도서관의 정리과란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에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이미 그 주제하에 분류되어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지 아는 정리과 사서가 몇이나 될까? 현실적으로 현행의 조직에서 그것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정리과 사서가 특정 주제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알려고 한다 하여도 그것은 분류업무 자체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결국 정리과 사서는 그 정보의 가치와 이용자 층을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표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개개 사서의 업무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각 부서의 관리자는 사서들의 업무평가를 단지 그들의 행정업무 수행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로 그들을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서들의 업무가 행정업무가 아닌 정보처리 업무라는 시각에서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입수되는 정보가 가치없는 것일지라도 또는 그것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으며 단순히 행정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면 그 사서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열람과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각 실에 분산된 사서의 능력평가는 잘 정돈된 서가, 조용한 도서관 실내 분위기만으로 평가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 4. 대학도서관 경영의 합리화 방안

앞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조직을 정보유통과 일치시켜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조직은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된 만큼 개선되는 도서관 시스템은 정보의 흐름에 따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가 특정 정보에 대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단행본 개가열람실, 폐가실, 참고문헌실, 정기간행물실, 논문실등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구하는 것은 서어비스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제로라 하겠다.

또한, 이용자의 정보자문 요구에 대해 철저히 서어비스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와 만나는 정보 사서는 그 이용자의 정보면담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가 주문되어 도서관에서 유통되는 전 과정에 일관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용자는 정보사서를 만나는 순간 도서관 전체 자원에 대해 서어비스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미래의 정보요구에 대해서도 사서가 예측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서와 이용자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사서에 특정주제나 영역을 부여하여 그 주제나 영역에 관련된 정보의 선정, 주문, 정리 및 이용자 서어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주제별 분관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우수한 대학도서관도 종합도서관이라기 보다는 특정 주제나 학과에 배정된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비록 도서관의 장서가 많고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하여도 결국 단위 이용자는 특정한 주제와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서어비스 역시 주제별 영역별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서가 주제전문가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서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특정주제 영역의 정보흐름과 정보생산에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주제전문사서와 대별하여 표현하여 보면 정보전문가라는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특정 주제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2차정보에 대해 민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2차정보를 생산,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서가 진정한 정보전문가이다. 물론, 정보전문가에게 주제배경을 부여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정보처



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인력관리가 그렇게 용이한 것 만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을 주제 분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주제 또는 영역별로 정보전문가(사서)와 준사서를 배치,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제의 자료를 선정토록하며 그들의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주고 행정부서인 수서과는 단순히 예산 배정과 조정을 거쳐, 선정된 정보의 기술적인 주문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수된 자료는 각 주제 분관, 또는 주제실로 보내져 주문한 사서에 의해 직접 분류, 정리되어 서가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서는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신속한 서서비스가 가능하며 도서관 관리자는 이용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유통에 따른 조직의 변화는 선행조건으로 전산화를 요구한다. 그간의 조직이 행정편의 위주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유통에 따른 조직으로는 원활한 행정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며 심한 경우 행정의 마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는 정보 유통과정에 따른 업무 조직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처리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컴퓨터가 정보의 통합과 분산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비록 분류, 목록이 각 실에서 분산되어 일어나더라도 그 데이터는 중앙에 집결되어 검색과 관리가 용이하며 각 실에서 선정된 자료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한 부서에서 일괄 주문이 가능하다. 한편, 관리자는 단말기를 통해 대출 현황과 주문 과정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각 실의 생산성과 사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조직의 하나로 기획실을 두어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실의 연계업무, 나아가 관외 데이터베이스 서서비스를 통제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예산 집행이 용이하리라 본다.

## 5. 결 론

이제까지 도서관 조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도서관 조직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하였다 하여도 그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사서의 자질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험과 준비를 거치지 않은 조직의 개편은 사서들의 불만을 사, 도리어 개편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준비과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전산화 계획에 도서관 경영 개선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의 개편을 전관에 걸쳐 수행하지 말고 특정 주제영역을 선정하여 주제분관 내지는 주제실로 개편하여 실험적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한 조직개편에서 오는 문제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사서와 관계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실적 토대 위에 개선안이 수용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학 당국의 도서관 경영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와 연속사업으로서의 투자를 요망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1. 정준민. 1991. "도서관전산화를 통한 자료의 공동이용." *국회도서관보* 28 : 25-34.
2. 정준민. 1989. "전산화를 전제로한 대학도서관 운영의 과학화 모색." *도서관학* 17 : 275-298.
3. Ahituv, Nev and Neumann, Sven. 1986. *Principles of Information Systems for Management, 2nd ed.* Dubuque, IA : Brown.
4. Allen, Brandt. 1987. "Make Information Services Pay Its Way." *Harvard Business Review* 65 : 56-63.
5. Broadbent, Marianne and McIntyre, L. B. 1983. "Information Management : Promise and Reality." In : *Information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Victoria Association for Library Automation.*
6. Cronin, Blaise. 1984. "What Is Information Management?" *Aslib Information* 12 : 27.
7. Cronin, Blaise. 1985. *Information Management : From Strategies to Action.* London : Aslib.
8. Dougherty, R. M. and Heinritz, F. J. / 남태우, 정준민 공역. 1987. *도서관 운영의 과학적 경영.* 서울 : 구미무역.
9. Gillman, Peter. 1985. "An Analytical Approach to Information Management." *Electronic Library* 3 : 56-60.
10. Griffiths, P. M. ed. 1986. *Information Management. State-of-the-Art Report.* Maidenhead, England : Pergamon.
11. Guinchart, C. and Menou, M. / 사공철, 김태수 공역. 1987. *정보관리론.* 서울 : 구미무역.
12. Lancaster, F. W. / 장혜란 역. 1990. *도서관서비스 평가론.* 서울 : 구미무역.

13. Segesta, J. and Hersberger, R. 1987. "The Scholarly Information Center : An Organizational Model." *Coll. Res. Lib.* 48 : 393-398.
14. Sullivan, Cornelius H. jr. 1985. "Systems Planning in the Information Age." *Sloan Management Review* 26 : 3-12.
15. Weingand, Darlene E. 1985. "Managerial Competences and Skills." *J of Library Administration* 6 : 23-44.